



2011 **12** 마산고등학교 제21회 동창회

통권 제324호

발행:이중섭 / 총무:구해룡 016-9567-6797

편집:제갈선광 010-5146-4925 / mail: wing44@paran.com

■■■
송년사

교장 난 **벽** 사계 는 있는데...] 정현경



가 가

* *

' . 가 ' .

. .

. 12 " ."

가 가 가 . 가

가 . 가

가 1 . 가

, 365

* *
 365
 가. 가
 !

 가 가 가
 가 12
 가
 가 가
 * *
 '가 年'
 年
 * *
 가 (2011年)
 " ! 年 年 ?"
 " 年 , 年 ."
 " ..! 年 365 ?"
 ▶

본부동창회 수입지출내역

2011년 11월

수입			지출		
적요	금액	비고	적요	금액	비고
회비	1,430,000	김박 김방태 김정수 신용운 이진부 정의건 각15만원	회보	210,000	인쇄(봉투포함)
				78,200	발송(해외수첩등포함)
		이복열 조남규 각10만원 김기정 김준형 배복기 신창한 우용태 이종량 각5만원 정창봉 3만원	월례회	600,000	쌍용복집
			경조비	550,000	김박 송인창 상가 각10만원 김선규 김용인 박영환 혼가 각10만 김석백 개업
협찬	1,900,000	박필근 100만원 김선규 김용인 박영환 이대우 각20만원 최건일 10만원	천도제	100,000	박필근선친 110주기
			문병	200,000	김정수 정정용
			위로금	100,000	이승원 방문
			관리비	95,000	동창회사무실
광고	60,000	김채열 신용운 각3만원			
모금함	120,400	동창회사무실	유선비	5,500	
			수당	150,000	총무
수입계	3,510,400		지출계	2,108,600	
전기이월	-123,711		차기이월	1,278,089	
합계	3,386,689		합계	3,386,689	

" , 年 !
 가 .
 年 ? 가 !!"
 " ! , 年(2012) , ~ ."
 " ! , 年
 " , 年 .
 . 年 年 .
 " , . 가 .
 " , . 가 年 !"
 "2012年" , 年 ,
 ^^

졸업50주년행사 참가비 18만원을 다음구좌로 접수합니다.
 계좌번호 : 김용인(우리은행) 1002-844-779524

나에게 갑자기 50년 전의 3학년 B반 친구들 생각을 해보라하니 우선 얼떨떨하다. 기억을 더듬어보지만 희미한 옛 그림자일 뿐이다. 나는 성격적으로 무디어 어울림이 많지도 않았다. 특히 배구, 서예, 그림 같은 취미활동 때문에 중요한 시기에 때를 잃은 생각뿐이다. 축구를 좋아하던 신창한 친구와 배짱 편하게 놀았던 기억이 더욱 잊을 수 없는 추억이다.

**졸업50주년을 앞두고
미리 만나보는
그때 그 친구들** } 3 B



이황구

지난 40년 이상을 부산에서 생활해 왔는데, 그것마저도 1969년 이후 줄곧 고무공장 생활을 하다 보니 별보고 출근하고 별보고 퇴근하는 세월에 무엇 하나 뒤돌아 볼 여유조차 있었겠는가?

글을 적다가 보니 쓸데없는 내 녀두리만 했네. 우리 반에서 이흥규, 이황구, 김영, 박기천은 청운그룹으로 남달리 가까이 지냈다. 그 후 20주년 행사 때는 잠시 마산에 머물고 있을 때이므로 회장 김영(시민외과 원장)과 기획업무로 의리의 사나이 신창한 친구와 내가 함께했던 생각이 떠오른다. 저녁이면 소주 한잔에 회 한 점 먹던 일이 잊어지지 않는 것도 추억이다.

가끔 남기제 친구와 만나 소주 한 잔 나누었던 아름다운 추억도 생각한다. 3학년 땀 내 옆자리에 앉아 항상 말이 없었다. 하지만 재주가 좋아 바둑도 잘 두고 이해가 깊은 친구였다.

나는 16년 전 사회활동을 접고 잠시 서실을 운영했을 때 마산에서 멧쟁이 김정수 친구의 갑작스런 방문과 함께 서로의 해외 프로젝트 계획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나며 사업후유증 문제로 변재웅 친구에게 자문을 들은 기억도 난다.

노재만 친구는 부산에 살면서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 보고 싶은 마음뿐이다. 최진화 친구는 부산의 마고 21기모임에 모범생이라 자주 만나는 편이다. 하만웅 친구는 온천장에서 약국사업으로 성공한 것으로 알지만 부산 마고 21기모임에는 별로 나오지 않으니 궁금할 따름이다.

특히 마산의료원에서 나의 어머니 장례식에 알리지도 않았는데 조문을 한 이종섭 회장 친구와 박필근 친구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한다.

남달리 부산 생활에서 잊을 수 없는 친구는 故 유길조 산부인과 원장 친구이다. 내가 사업상 난감할 때 항상 위로해 주었고 나에게 하는 말이 버릇처럼 “숨겨놓은 재능을 늦지 않으니 시작하라.”고 하며 저녁이면 무조건 술 한 잔 하던 친구다. 무정하게도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렸다. 이만 적고 정리해 본다. 우리 반은 모두 59명인데 아래와 같다.

● 동문 수첩 등재자

곽호남 권영집 김기태 김기수 김문박 김영 김일섭 김정수 남기제 노재만 박광지박기천 박장규 박종우 박필근 변재웅 서수길 신창한 안병근 안병조 이종섭 이흥규 임향훈 최진화 하만웅 한상주 황희생 이황구(28명)

● 주소 미확인 또는 행불자

강인순 김무현 김영수 김용우 김의직 김정무 김진균 남홍우 민지식 손상호 손철시 심재원 위근한 윤귀성 윤규환 윤용호 윤치원 이정이 이상렬 전두식 정재화 조태호 조현근 주성태(24명) ▶



오동동 복어명가 쌍용복집에서 11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 종섭 회장의 여유만만하고 느긋하게 카리스마 있는 인사말에 이어 총무는 무작위로 동문동정을 상세하게 보고하였다.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가려면 좋은 말벗과 글벗과 길벗을 만나야 한다고 했다. 벗을 사귄데 있어 진정한 기준이 되는 것은 진실과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성품을 지닌 우리 21회 마고동창들이라고 감히 생각한다. 자기의 정체성, 인생관과 가치관은 친구를 통해서 자기개발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촌놈이라고 했던가.

인디언 말로 ‘친구’는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라고 하였다. 그렇게 희생적일 수 있는 친구, 주위를 둘러보며 진정한 벗을 생각해야할 시간이다. 누가 나에게 진정한 벗인가, 나는 누구에게 진정한 벗인가.....

참석자

- 김수성 곽영식 구해룡 김기정 김기태 김기현 김동열 김방태 김석백 김선규
- 김성규 김순택 김용인 김정수 김준형 김채열 김대욱 김한경 박소학 박영한
- 박필근 배복기 배종길 변재국 변재웅 손기홍 손동개 신창한 여경현 우용태
- 이대우 이무일 이복열 이영부 이종섭 이종량 장영의 장정치 정안정 정의건
- 정종필 정창봉 제갈선광 조남규 조정웅 지해경 최건일 최광수 황희생 이상49명



♣ 김박 동문

지난 11월1일, 동문의 모친께서 향년 93세로 천수를 다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김석백 동문

동문의 집과 사무실 새주소입니다.
 김해시 장유면 팔판마을 448-1
 e부영그린3차아파트 309동 1305호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247-38
 장유 율하 119종합인력
 055-327-1190 011-488-9871

♣ 송인창 동문

지난 11월27일, 동문의 부친께서 향년 90세로 천수를 다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祝結婚

김기정 동문 의 장남 근현 군
 김소연 여사

새가정을 이루는 두 사람의 만남을 축복해 드립니다.

일시 : 2012년1월14일(토) 오후2시
 장소 : 파크웨딩홀
 진해 055-543-1070

◁ ● 사망자

강광정 강병호 김택언 서만교 서성덕 유길조 이철수(7명)

이번 기회에 친구들아 그저 편하게 만나자. 산전수전 다 치룬 노병의 모습들이 궁금하구나. 그리고, “우짜든지 편안하그래이.....”



10월 23일 2시 30분 김수용 친구 여식의 결혼식이 있었다. 이날 마산친구 소학이가 친히 참석을 해주었고, 더욱이 故 유길조의 부인까지 등장, 축하를 해줌으로서 그때의 길조를 잠시 생각했다. 이어서 우리들은 수용이가 준 거금50만원을 들고 초량 차이나타운을 찾았다. 우리들은 돌아가는 회전 테이블을 안고 맥주, 배갈, 소주 등을 주고받으며 정기모임의 시간을 가졌다.

11월 7일 오후 5시에는 남연 이황구의 연묵서화회원전이 거행된 부산시청 전시실에 모였다. 이 자리에는 허남식 부산시장, 제정모 부산시의회 의장, 삼광사 유화산 주지스님, 연묵회원 40여명과 우리 친구들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제 의장의 축하인사에 이어 이날의 주연인 연묵회장 이황구 친구의 인사말이 이어지자 장내 내빈들의 박수가 대단했고, 물론 남연 사모님의 커피 제공 등 장내 서빙도 예쁘게 진행됐었지!

황구 친구는 일찍이 부산동래 향교 장의를 거쳐 한국 성균관 유도회 총 본부 상임이사, 사단법인 한국성씨 연합회 사무처장직을 경유, 2008년부터 부산 연묵서화 회장직까지 겸하고 있어 이는 자랑스러운 우리 마고의 보배이다.

이어서 우리친구들은 자리를 옮겨 가자미회연을 가졌는데 행사를 끝낸 황구가 꼭 참석하겠다고 하여 그 많은 경비도 부담했고 다음 순서는 박영섭이가 안내하는 선술집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곳에서는 ‘다이아나’ 등 60년대 올드팝들이 우리들의 머리를 사로잡았다. 여기에 분위기가 고조된 우리들은 남원일이가 평소 즐겨 찾던 펌킨으로 자리를 다시 옮겼다. 이곳에서는 레이찰스의 I can stop loving you, 톰존슨의 green green grass go home, I have a dream, hotel california, crazy love 등 주옥같은 왕년의 올드팝을 주문하여 멋진 D·J의 속삭임에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자 손춤, 발춤, 그리고 불뿐까지 올려 가며 이날의 밤을 즐겼다.

나는 짬지가 생각났다. 이 친구와 나의 기타 선율에 우리 같이 했으면 했다. 결국 황구의 Time to say good by가 터져 나왔고 이어 장우가 엔디월리엄스가 부른 모정, 그리고 의승이의 데니보이로 이어지고 말았다.

그래! 이 친구들 멋지잖아 마산, 서울 친구들에게 한번 빌려줄까? 이날 장우가 내손을 끌며 또다시 자리를 옮기자고 했다. 밤 12시 40분 전철, 버스가 다 끊어진 이 밤! 인자 어디로 갈끼고?

협찬 감사합니다.

빅필근 동문께서 본부동창회 발전기금으로 금100만원을 협찬하였습니다.

졸업50주년행사
날짜변경
2012. 3. 25

11 23 , 가

1.

2012 5 13

3 25

2.

1) 12 ()

(1)
(3)

5 (1) (30)
(2) 10 30

2) 7 ()

(1) 8 30 (3)
(1:30)

7 - 1 (1:30)
(2 2)

3) ()

(4) 8 30
(4 , (2))

3 30

3. 가

1) 1 ()

(2) (1) (1) 10 10
3 (, ,)

: - 13 ?
- 1
; ? , ; 33 , ; 34

2) 가 : ? (15)
18 (15)
18 (16)

1) 가

2) 가 가 가

3) ()

4) 20 가

4.

:

()
(8):

: 2012. 3. 9 17:00 ~ 19:00
: (가 : 100)
故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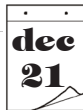
2. : 가 ()

3. : 100

2011년 12월 월례회 안내

월례회

일시 : 21일(수) 오후 6시30분
장소 : 불로식당(246-6260)
동성동 한국투자신탁
골목 앞



부인회

일시 : 21일(수) 12시 30분
장소 : 샤브샤브 & 구이마을
오동동 고려모텔 앞(221-9404)

